

8연속 버디쇼…올 시즌 처음으로 웃은 고진영

〈KLPGA 한 라운드 최다 타이 기록〉

KLPGA 삼다수 마스터스 17언더파 199타 시즌 첫 우승…“전반기 기대감에 부담 컸다”

고진영(22)이 경쟁자들의 끈질긴 추격을 뿌리치고 2017시즌 자신의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첫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고진영은 8월 13일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오라컨트리클럽(파 72·6545야드)에서 열린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총상금 6억원)에서 최종합계 17언더파 199타로 우승을 차지했다. 올 시즌 국내 투어 12번째 출전 만에 거둔 첫 우승이자 KLPGA 개인 통산 8승째다. 상금은 1억2000만원이다.

전날 손끝으로 느낀 절정의 감각이 마지막 날까지 이어졌다.

고진영은 12일 대회 2라운드에서 KLPGA 역대 타이 기록인 8연속 버디(11~18번홀) 대기록을 작성했다. 가능성이 낮아보였던 장거리 퍼트는 물론 그린 밖 칩샷까지 모두 홀컵으로 빨려 들어갔다. 거칠 것 없는 기세로 2라운드를 공동 2위(11언더파 133타)로 마친 고진영은 오지현(21·KB금융그룹), 이승현(26·NH투자증권)과 함께 최종 라운드에 나섰다.

대회 마지막 날은 출발부터 산뜻했다. 첫 홀 버디로 2라운드에 이어 9연속 버디를 기록한 고진영은 이후 8번홀까지 파 행진을 했다. 선두 오지현은 계속된 보기로 주춤한 사이에 어느새 단독선두 자리까지 꿰찼다.

이후 9번 홀 버디로 기세를 올린 고진영이 도망가면 경쟁자들이 따라붙는 레이스가 계속됐다. 라운드 중반에는 무려 네 명의 선수들이 공동 2위 그룹을 형성해 선두를 압박했다. 그러나 고진영은 12번 홀 버디와 14~15번 홀 연속 버디로 우승을 사실상 확정지었다. 다만 18번 홀에서 버디 퍼트가 홀컵 바로 앞에서 공이 멈춰



고진영(가운데)이 8월 13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린 KLPGA투어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에서 최종합계 17언더파 199타로 우승을 차지한 뒤 물세례를 받고 있다. 제주 1 뉴시스

2016년 박성현(24·KEB하나은행)이 작성했던 대회 최저타 기록(18언더파)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데는 실패했다.

이날 우승은 11전 12기 끝에 찾아온 선물이라 더욱 달콤하다. 고진영은 이번 대회 직전까지 올 시즌 KLPGA 투어에 11차례 나서 모두 실패를

봤다. 가장 준수한 성적이 my문영 퀸즈파크 챔피언십 4위였지만 이번에 거둔 완벽한 우승으로 그간의 격정을 모두 지웠다.

고진영은 “전반기 많은 기대를 받았던 탓에 부담감이 커지면서 우승이 쉽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회에선 부담감을 조금 내려놓으면서 경기가

잘 풀렸다. 특히 어제 기록한 8연속 버디라는 좋은 기운이 오늘까지 이어졌다”며 밝게 웃었다. 고진영은 “상반기 부진으로 스윙은 물론 정신적인 측면까지 많은 부분에 변화를 주면서 점차 나아지고 있다. 남은 하반기 역시 기대된다”고 부푼 소망을 전했다. 고훈준 기자 shutout@donga.com

연장전에서 운 김하늘

JLPGA 가루이자와 토너먼트 준우승

JLPGA(일본여자프로골프) 시즌 4승과 시즌 상금 1억 엔 돌파를 노렸던 김하늘(29·하이트진로)이 아쉽게 연장전에서 저 준우승을 차지했다.

김하늘은 8월 19일 일본 나가노현 가루이자와72골프클럽 북코스(파 72·6855 야드)에서 벌어진 JLPGA 시즌 23번째 대회 NEC 가루이자와 골프로 토너먼트 최종 3라운드에서 11언더파 공동선두로 출발했으나 4개의 버디와 3개의 보기로 71타를 마크, 1타를 줄이는데 그쳐 3라운드 최종합계 12언더파 204타를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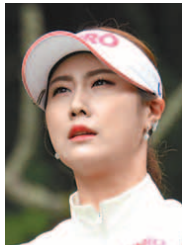
공동선두 히가 마미코도 3버디 2보기로 1타를 줄여 동타를 이뤘다. 김하늘은 전날 6번(파4)과 9번(파5)에서 버디를 잡으며 추격자를 뿌리치려고 했지만 2라운드와 같은 절정의 퍼트 감각이 살아나지 않는 것이 찜찜했다. 후반 12번(파3)에서 3라운드 첫 보기가 나왔고 설상가상 파4홀인 14번홀과 15번홀 연속 보기로 힘들게 줄여왔던 타수를 잃고 선두마저 내줬다.

16번홀(파5)에서 버디를 성공시켜 출발 때와 같은 스코어를 유지한 김하늘은 18번홀 버디 덕분에 경기를 연장으로 몰고 갔다. 파4홀에서 세컨드 샷을 홀 3m 부근에 떨어트린 뒤 홀 라이의 어려운 버디 퍼트를 성공시키며 파에 그친 히가 마미코와 연장전에 돌입했다.

18번홀에서 벌어진 첫 플레이오프는 세컨드 샷에서 승패가 결정 났다. 아이언 샷 대결 결과 김하늘의 볼은 홀컵 8m 거리에 떨어진 반면 히가 마미코는 30cm의 쉬운 버디 퍼트만을 남겨놓아 승패가 갈렸다.

한편 올 시즌 계속 부진한 플레이를 이어간 이보미는 최종라운드에서 무려 6타를 줄이며 함께 8언더파를 기록 공동 7위를 마크했다.

김충건 기자 marco@donga.com



김하늘

농구



WKBL 선수들의 '3x3농구' 색다른 재미 KB스타즈 심성영(오른쪽)이 8월 13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시민공원 에빛섬에서 열린 'WKBL 3x3 토너먼트 트리플젠' 예선에서 삼성생명 바다정(왼쪽)의 수비를 뚫고 득점을 시도하고 있다. 이번 대회는 WKBL이 3x3농구 활성화를 위해 펼친 이벤트로 국내에서 현역 WKBL 선수들이 참가한 첫 3x3대회다. WKBL의 6개 구단(신한은행, 삼성생명, 우리은행, KB스타즈, KDB생명, KEB하나은행) 간판 선수들이 참가해 팬들에게 색다른 볼거리를 제공했다. 뉴시스

한국농구, 광복절 운명의 한일전

아시아컵 강호 뉴질랜드 잡고 조 3위
12강 토너먼트서 일본과 8강행 다툼

한국남자농구대표팀이 강호 뉴질랜드를 꺾었다.

한국은 13일(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C조) 3차전에서 점전 끝에 뉴질랜드를 76-75로 이겼다. 오세근(13점·7리바운드), 이종현(16점·2리바운드), 전준범(9점·3점슛 3개) 등 선수들의 고른 활약에 힘입어 강팀 뉴질랜드를 잡았다.

특히 오세근~이종현~김종규(10점·3리바운드)~이승현(7점·3리바운드)이 지키는 포스트는 몸싸움이 강한 뉴질랜드를 상대로 리바운드 싸움에서 32-31로 앞서는 등 팀 승리에 크게 기여했다.

아쉬움도 있었다. 한국은 전반을 41-30으로 크게 앞섰지만 3쿼터에 공수 균형이 무너지면서 후반 내내 끌려가는 경기를 펼쳤다. 12강 토너먼트를 앞두고 반드시 되짚어볼 부분이다. 뉴질랜드전에서 드러난 자유투 부진(65.4%)과 수

비 전술 변화도 반드시 점검이 필요하다.

이번 승리로 한국은 조별리그 3경기에서 2승 1패를 마크해 뉴질랜드, 레바논과 같은 성적을 거뒀지만 타이브레이커를 따라 조 3위를 차지했다. 3개 팀이 나란히 1승1패씩 주고받은 가운데 득실점에서 +3점을 기록한 뉴질랜드가 조 1위, +2점의 레바논이 2위, -5의 한국은 조 3위로 결정됐다.

각조 1위는 8강에 자동진출하며 4개조 2~3위 팀은 12강 토너먼트를 통해 8강행을 놓고 격돌한다. 한국은 공교롭게도 광복절인 8월 15일 12강에서 D조 2위 일본(2승1패)을 만난다. 2016년 6월 동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일본에 72-78로 졌지만 당시 한국은 1.5군으로 구성된 대표팀이었다. 한국은 오세근, 김선형, 박찬희, 이정현, 김종규 등이 가세한 반면, 일본은 큰 변화가 없다. 2000년 이후 성인대표팀간 맞대결에서 한국은 9승1패로 일본을 압도해왔다. 이번에도 객관적인 전력에서는 앞서지만 결코 만만히 볼 상대는 아니다. 일본 최고의 슈터 히에지마 마코토(27·190cm), 포인트가드 토가시 유키(24·167cm), 귀화선수 아이라 브라운(35·193cm) 등은 경계해야할 선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



이종현(가운데)이 8월 13일(한국시간) 레바논 베이루트에서 열린 '2017 국제농구연맹(FIBA) 아시아컵' 조별리그 3차전에서 뉴질랜드를 상대로 3점슛을 시도하고 있다. 사진제공 | 대한농구협회

사익스도 터키행? 외국인선수 합류 전부터 '잠음'

(KGC)

더스틴 호그 터키행…오리온과 계약파기
사익스도 터키 구단서 영입 제한 '칼자루'

프로농구 10개 구단은 2017~2018시즌을 소화할 20명의 외국인선수(팀당2명)들이 8월 15일부터 팀에 합류할 수 있도록 일정을 맞췄다.

현재 각 구단은 외국인선수 합류 직후부터 연습경기를 통해 조화를 맞춰갈 수 있도록 국내 선수들의 경기력을 끌어올리는 과정에 있다.

그러나 외국인선수 합류 이전부터 계약파기 소식이 잇따르면서 몇몇 구단들이 흥역을 앓고 있다. 오리온이 첫 희생양이 됐다. 2017 외국인수 드래프트 1라운드에서 선발한 더스틴 호그(25·192.9cm)가 터키리그 카르시야카와 계약을 맺어 버렸다. 카르시야카로부터 50만 달러(약 5억7000만원)의 연봉계약을 맺은 호그는 오

리온에 10만 달러(약 1억1400만원)의 위약금을 물고 계약을 파기했다. 한 구단관계자는 “10만 달러의 위약금을 내도 국내에서 받는 금액(월봉 3만 달러·약 3400만원)보다 10만 달러 가량 더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 선수가 손해 볼 것은 없다. 오리온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지만, 선수 입장에서선 당연한 선택일 수도 있다”고 했다.

오리온은 호그를 대신해 새로운 선수를 뽑아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시즌 통합우승을 차지한 KGC도 재계약을 한 키피 사익스(24·178cm)의 합류가 불투명하다. 전 세계 프로농구 소식을 전하는 유로바스켓은 8월 11일(한국시간) ‘터키 2부리그 양카라가 선수 명단에 사익스를 추가시켰다’고 알렸다. 사익스는 지난 시즌 엄청난 운동능력과 개인기를 뽐내며 정규리그 평균 15.2점·4.6어시스트를 기록해 KGC의 통합우승에 기여했다. KG

C는 망설임 없이 재계약을 맺었지만 거취를 놓고 프로농구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사익스가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는 소문이 무성했다.

미국프로농구(NBA) 도전의 미련을 놓지 않았고 타 리그로부터의 영입 제안도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KGC 관계자는 “터키리그의 구단으로부터 영입제안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아직 확정지는 아니다”고 말했다.

KGC는 사익스의 에이전트를 통해 팀 합류 여부 의사를 문의한 상태다. 칼자루는 사익스가 쥐고 있다. 그가 터키행을 결정한다면 KGC는 어쩔 수 없이 대체선수를 구해야만 한다. 이처럼 합류 이전부터 계약 파기 사재가 나오는 가운데 올해는 기량미달로 인한 외국인선수 교체도 자주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각 구단은 외국인선수 합류시점을 기준으로 일주일 이후부터 교체가 가능하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